Java로 구현한 Diff

|  |  |
| --- | --- |
| test\_from3.txt (5,367 바이트) | test\_to3.txt (5,766 바이트) |
|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논이 올 듯하더니, 논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또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  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논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또 못한 김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또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또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또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또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또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또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또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또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또 않은 것을 그 오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또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고가 켕긴다 하고 논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쩌란 말이야! 왜 논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논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논시울또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또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또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또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또 있다.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또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또 없이 그 먼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또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논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또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또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논,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논앞에 어른어른하였다. |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소설목록으로 가기)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켕긴다 하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도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

|  |
| --- |
| 결과-version 0- diff\_print\_0 (); |
| Diff(EQUAL,"﻿운수 좋은 날 / 현진건")  Diff(INSERT," (소설목록으로 가기)")  Diff(EQUAL,"  새침하게 흐린 품이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이 올 듯하더니,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  Diff(DELETE,"  ")  Diff(EQUAL,"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못한 김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Diff(INSERT," 제 거의 눈물을 흘릴")  Diff(EQUAL,"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  Diff(INSERT,"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  Diff(EQUAL,"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  Diff(DELETE,"  ")  Diff(EQUAL,"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않은 것을 그 오")  Diff(INSERT,"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  Diff(EQUAL,"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  Diff(DELETE,"고")  Diff(EQUAL,"가 켕긴다 하고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쩌란 말이야! 왜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시울")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  Diff(DELETE,"고")  Diff(EQUAL,"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있다.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Diff(DELETE,"  ")  Diff(EQUAL,"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없이 그 먼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  Diff(INSERT,"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  Diff(EQUAL,"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  Diff(DELETE,"또")  Diff(INSERT,"도")  Diff(EQUAL,"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  Diff(DELETE,"논")  Diff(INSERT,"눈")  Diff(EQUAL,"앞에 어른어른하였다.")  Diff(INSERT,"  \_ |

|  |
| --- |
| 결과-version 1- diff\_print\_linenum(); |
|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EQUAL>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from file line num : 1~1 to file line num : 1~1 INSERT>  (소설목록으로 가기)  <from file line num : 1~3 to file line num : 1~3 EQUAL>  새침하게 흐린 품이  <from file line num : 3~3 to file line num : 3~3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3~3 to file line num : 3~3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3~3 to file line num : 3~3 EQUAL>  이 올 듯하더니,  <from file line num : 3~3 to file line num : 3~3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3~3 to file line num : 3~3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3~5 to file line num : 3~5 EQUAL>  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EQUAL>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5~5 to file line num : 5~5 EQUAL>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  <from file line num : 5~6 to file line num : 5~5 DELETE>  <from file line num : 6~6 to file line num : 5~5 EQUAL>  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from file line num : 6~6 to file line num : 5~5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6~6 to file line num : 5~5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6~8 to file line num : 5~7 EQUAL>  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EQUAL>  못한 김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INSERT>  제 거의 눈물을 흘릴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EQUAL>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EQUAL>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EQUAL>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8~8 to file line num : 7~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8~10 to file line num : 7~9 EQUAL>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0~10 to file line num : 9~9 EQUAL>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from file line num : 10~11 to file line num : 9~9 DELETE>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EQUAL>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EQUAL>  않은 것을 그 오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EQUAL>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EQUAL>  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DELETE>  고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EQUAL>  가 켕긴다 하고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11~11 to file line num : 9~9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11~13 to file line num : 9~11 EQUAL>  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쩌란 말이야! 왜  <from file line num : 13~13 to file line num : 11~11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13~13 to file line num : 11~11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13~15 to file line num : 11~13 EQUAL>  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EQUAL>  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EQUAL>  시울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5~15 to file line num : 13~13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5~17 to file line num : 13~15 EQUAL>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  <from file line num : 17~17 to file line num : 15~15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7~17 to file line num : 15~15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7~19 to file line num : 15~17 EQUAL>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  <from file line num : 19~19 to file line num : 17~1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19~19 to file line num : 17~1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19~23 to file line num : 17~21 EQUAL>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EQUAL>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DELETE>  고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EQUAL>  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23~23 to file line num : 21~21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23~29 to file line num : 21~27 EQUAL>  있다.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  <from file line num : 29~29 to file line num : 27~27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29~29 to file line num : 27~27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29~29 to file line num : 27~27 EQUAL>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from file line num : 29~30 to file line num : 27~27 DELETE>  <from file line num : 30~34 to file line num : 27~31 EQUAL>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EQUAL>  없이 그 먼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EQUAL>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INSERT>  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EQUAL>  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34~34 to file line num : 31~31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34~38 to file line num : 31~35 EQUAL>  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  <from file line num : 38~38 to file line num : 35~35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38~38 to file line num : 35~35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38~44 to file line num : 35~41 EQUAL>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  <from file line num : 44~44 to file line num : 41~41 DELETE>  또  <from file line num : 44~44 to file line num : 41~41 INSERT>  도  <from file line num : 44~48 to file line num : 41~45 EQUAL>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EQUAL>  ,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DELETE>  논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INSERT>  눈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5 EQUAL>  앞에 어른어른하였다.  <from file line num : 48~48 to file line num : 45~47 INSERT>  \_ |

|  |
| --- |
| 결과-version 2- diff\_print\_barsket(); |
|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소설목록으로 가기)]]  새침하게 흐린 품이 <<논>>[[눈]]이 올 듯하더니, <<논>>[[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거기<<또>>[[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  >>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논>>[[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또>>[[도]] 못한 김첨지는 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 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또>>[[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또>>[[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또>>[[도]] 사다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또>>[[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또>>[[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또>>[[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또>>[[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또>>[[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또>>[[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또>>[[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고>>가 켕긴다 하고 <<논>>[[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쩌란 말이야! 왜 <<논>>[[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논>>[[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논>>[[눈]]시울<<또>>[[도]] 뜨끈뜨끈하였다.  환자가 그러고<<또>>[[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또>>[[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인제 설렁탕을 사 줄 수<<또>>[[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고>>파 보채는 개똥이(세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또>>[[도]] 있다. ---팔십 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또>>[[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로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 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 '고꾸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또>>[[도]] 없이 그 먼곳을 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또>>[[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켕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월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논>>[[눈]]에다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며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래<<또>>[[도]]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압다, 젠장맞을 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또>>[[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논>>[[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논>>[[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_ |